

# 한국 도자기 아름다움 · 가치 알린다

대한민국 명장 권영배 작가, K-도자기 프로젝트 추진 첫걸음... 크라우드 펀딩 진행

와디즈 최초로 대한민국 명장 권영배 작가의 신작인 백자 물방울 달항아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선보이게 된다. 이번 펀딩은 권 작가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K-도자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한국의 도자기 작품 세계를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K-도자기 프로젝트는 권영배 작가가 2022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이후 품었던 꿈에서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며,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작품을 통해 후배 도예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권 작가의 열망을 담고 있다.

권 작가는 "전통 도자기 예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권영배 작가는 백자와 분청 분야에서 47년간 활동하며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백자달항아리, 청화백자, 진사 등 다양한 도자기 작품을 제작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특히, 이번 물방울 달항



대한민국 명장 권영배 작가

아리는 자연의 순수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물방울 달항아리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는 권 작가가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그린 물방울 무늬가 특징이다. 그는 물방울 색을 표현하기 위해 약 6개월 간의 연구와 여러 실험을 통해 도자기와 어울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는 물방울 색감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작업 과정은 작품마다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번 펀딩은 권영배 작가의 예술적 비전을 실현하는 첫 단계로, 많은 분들의 참여

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양한 사이즈의 물방울 달항아리를 한정 수량으로 제공하며, 작품 인증서, 작가 개인전 초대권, 도록 교환권 등 특별한 리워드가 포함된다.

그리고 권영배 작가가 본인의 장애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 되는 일대기를 다룬 영화 '바람이'도 행복영화사에서 2024년 국제 영화제 참가를 목표로 현재 류숙현 감독이 참여하여 제작 중에 있다. 이 영화는 그의 예술적 여정과 도자기 제작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도자기 프로젝트를 통해 권영배 작가는 한국 전통 도자기의 글로벌 진출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후진 양성을 위한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권 작가는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도예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작품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펀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와디즈 플랫폼(<https://app.wadiz.kr/links/wqTn3hKKKl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선물'

전북도립미술관, 이견희컬렉션 · 공립미술관 · 기증작 중심 139점 전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지난 14일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선물' 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식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삼성문화재단 김황식 이사장과 류문형 대표이사, 기증자인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최성숙 명예관장을 포함한 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이종섭, 박수근, 나혜석, 이응노, 장욱진 등 근현대 대표 작가 47명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선물'에서는 이견희컬렉션을 비롯한 공립미술관과 기증작들을 중심으로 139점이 전

시된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이종섭미술관,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소장의 이견희컬렉션 85점과 창원시립문신미술관, 고창군립미술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수원시립미술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이응노미술관 소장의 기증작품 54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사전예약제와 현장접수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이애선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기증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공의 유산으로 자리 잡은 예술 작품들이 주는 가치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벽천 나상목 화백 작품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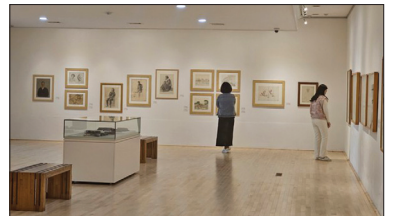
김제시벽천미술관, '벽천 나상목의 회화(繪畵) 세계(世界) 기획전 개최

김제시벽천미술관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미술관 상설전시실 전시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벽천미술관 개관 당시 기증받은 작품 중 산수화, 풍경화 등 대표작 외에도 자주 선보이지 않았던 스케치 작품도 엄선해 '벽천 나상목의 회화(繪畵) 세계(世界)'라는 주제로 기획전시회를 지난 14일부터 진행했다.

벽천 나상목 화백은 한국화단을 이끌었던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실경(實景)에 가깝게 그린 그림)의 대가다. 그는 철저한 자연성에 입각한 전통 화법을 연구했으며, 기존의 산수화풍에서 벗어나 자연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하며 호남화단 특유의 습윤(濕潤)한 화풍을 완성했다.

전시 구성으로는 산수화, 풍경화, 스케치 등 총 29점을 전시했다. 나 화백은 김제의 산수(山水) 뿐만 아니라 외국의 풍경까지 탐구하며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했다. 그의 모든 작품은 스케치를 바탕으로 완성됐다. 늘어진 소나무,



돌과 바위, 산과 물 등을 현장감 있게 표현했으며 이것은 그가 사색(思索)과 사유(思惟)를 바탕으로 스케치 작업에 매진한 결과다. 또한 인물 스케치를 그리며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그러나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대상을 묘사하며 받은 미적 감흥이나 느낌을 그의 의식과 함께 표출시켜 작품을 완성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전시를 관람하며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나상목 화백의 한국 근현대 미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제19회 부안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열려

제19회 부안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가을밤의 낭만, 시, 그리고 하모니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15일 오후 7시부터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안군 여성합창단은 2001년에 창단된 이후, 부안군 공동체의 정서를 노래에 담아내며 지역 사회의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에 초청되어 참여하고

수상하는 등 그 음악적 기량을 인정받았으며, 부안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백동현 지휘자가 이끄는 36명의 부안군 여성합창단은 《희망의 노래 Medley》와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OST인 《바람의 빛깔》 등 따뜻한 감성을 담은 명곡들을 선보였으며, 이어서 《Radetzky March》와 《Turkish March》 같은 경쾌한 리듬의 클래식 곡들을 통해 하모니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또한, 유학과 출신 4인조 팝페라 그룹 Saint와 부안가곡교실 합창단의 특별출연이 더해져 무대를 한층 빛나게 만들었다.

이번 부안군 여성합창단장을 맡고 있는 최영두 부군수는 "합창이라는 예술을 통해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 오늘의 멋진 공연을 위해 헌신적으로 준비해주신 백동현 지휘자와 여성합창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북대박물관, 계원 민윤식 선생 기리는 특별전 개최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임혁용)이 전북 서예계의 큰 스승이자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계원(桂苑) 민윤식 선생을 기리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전북대박물관에 기증된 계원 선생의 서예 작품 130여 점 중 일부를 대학 구성원 및 지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북대박물관 기획전시실과 중앙홀에서 열린다. 전시 개막식은 18일 오후 2시 30분 진행

될 예정이다.

계원 민윤식 선생은 전통 한의학을 가업으로 삼으며 서예에 대한 열정을 이어온 인물로, 호산 이광열 선생에게 사사 받아 전북 서예계의 맥을 잇고 다양한 서화전에 초대작가로 활약했다.

또한 전국서화백화대상전 운영위원장, 한국서화작가협회 부회장, 전북서화회 회장, 한민서화회 회장, 청암 이삼만 선양회 설립 등 서예 진흥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서예계와 연

극계에 사재를 들여 적극 후원한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

이번 특별전에 소개되는 작품은 근검과 충효, 수신과 처세, 효연지기, 비문과 현관 등으로, 지역의 서맥을 이어나간 계원 선생의 작품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다.

임혁용 박물관장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에 큰 공이 있는 분을 발굴하고, 그가 남긴 유작들을 알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점에서 이번 전시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계원 서예 기증의 큰 뜻을 기려 지역의 서예사를 살찌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혜경 전주대 겸임교수, 제29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대상'

전주대학교 전혜경 겸임교수(융합디자인학과·사



전주대학교 전혜경 겸임교수

진)가 '제29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대한민국의 전통공예 진흥과 계승발전 및 전통 공예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공모전으로 목철, 금속, 도자, 한지, 서각, 섬유, 민화, 기타 분야에 총 4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됐

다.

이 중 전혜경 겸임교수는 한지분야 전통 지승 기법이 적용된 '지승 달항아리 세트'를 선보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혜경 겸임교수는 "이번 작품은 전통 지승 공예를 기반으로 우리 선조들의 감성과 예술적 표현을 심미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라면서 "추후 전통 공예를 주제로 한 정기적인 학술연구의 확대 및 전통 공예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